

## 제 4 장 열두 제자의 역사성

### 1. 주제

- 열두 제자는 사실상 진짜였다고보다는 상징적으로 진짜였다(p.82)
- 문자주의적인 이해에서 벗어나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변질시키지 않을 수 있다.

### 2. 문제점

- 역사적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의 구성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있는가?
- 복음서들도 그 열두 제자의 이름을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.
- 열둘은 초기개념이며, 그 정확한 구성은 중요하거나 선명한 것 같지 않다. (가롯유다는 창작된 인물?)

### 3. 논점

-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제자가 열둘이라던가 그 열두 제자의 정체가 누구였는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.
- 제자들의 명단 순서는 초기 기독교 내에서의 우위다툼일 수도 -----(*doubting Thomas*)
- 항상 예수를 따르던 자들(제자) 중에는 여인들이 있었다. => 열두명의 남자는 유대적 발상(열두지파?)
- 열둘이라는 숫자만 중요 => 맞디아 선택

### 4. 결론

- 문자주의적인 이해는 애당초 이런 설명들을 만들어낸 예수 체험의 능력을 가려버린다.

-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변질시키지 아니한 채,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포기할 수 있다.(좀더 껌질을 벗겨내야--)

## 5. 생각해보기

- 각 복음서 저자들의 신학(사관?)을 읽어내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?